

## 내 몸에 찌르는 가시

안병무

### 바울이라는 사나이

역사에서 바울과 같이 지독한 사람은 달리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천 년 전 인물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 가짐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표현한 육필을 세상에 남긴 사람을 나는 모른다. 그는 글자 그대로 악전고투하는 생을 보내면서 많은 친구도 얻었지만 많은 원수도 가졌다. 그의 삶은 글자 그대로 파란만장하다.

젊은 날의 정열을 온통 쏟아 박해 전선에 나섰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민중들이 섬기는 不學無識한 청년 예수에게 굴복하여, 오직 그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지구의 반 가까운 거리를 몇 차례씩 오고 가며 모든 적대자들과 대결한 바울, 그는 내환을 겪고 있었다. 그가 전향하여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됐는데도 그의 가르침이나 행적을 물고 뜯는,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율법의 반역자로 죽음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었다. 누가 그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다. 예

수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표현은 자주 하지만 현실로는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이고 삶의 목적은 자기를 송두리채 내버리면서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뿐 아무 사적인 욕심도 없는 길이다. 그의 얘기 속에는 결혼은 물론 그의 친척이 있다는 언급조차 단 한번도 없다. 누구 하나 그 멀고 먼 길을 다니는데 경제적 뒷받침을 하는 이도 없다. 오직 배운 천막지기 하나로 제 손으로 밥을 빌어먹으면서 일생을 보냈다.

그런 그에게 심각한 병이 있었다. 무슨 병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확실한 것은 그 병은 바로 신에게 저주받은 병이라는 관념 안에 있는 그런 것이었다. 더 그에게 전될 수 없었던 것은 그 병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사전에 거부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 병 때문에 그가 가진 종교가 의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신에게 매달려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전력을 기울여 애걸했다. 그의 편지의 표현으로는 세 번 기도했다고 하나 그것을 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다. 이것은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로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병은 낫지 않았다. 신은 그의 처절한 애걸을 안 들어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 병을 운명처럼 걸머지고 사람 앞에서 수모를 당하면서 그 병과 자기가 전하는 종교와 무관하다는 것을 설득해야만 했다.

바울은 이 병을 자기의 몸에 박힌 가시라고 말했다.

#### 상처

몸 가운데 깊이, 깊이 박힌 가시. 그것은 잠깐 피부를 스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속에 깊이 박힌 가시로 안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상처일 것이다. 그의 상처는 몸에

만 국한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가 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물로서 언제나 심리적으로도 찢러 피를 내는 그런 상처다.

병이 있으면 낫기를 바라고 상처가 있으면 빨리 아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상정이고, 그런 소원을 돕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를 사랑하는 신은 그의 가시와 같은 병을 낫게 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애걸하던 바울은 뜻밖의 생각에 도달한다. 그것은 그 상처, 그 병은 나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상처가 있어서 그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역설적인 내용을 표현한 바울의 설명을 대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네게는 그 병이 너를 너 되게 한,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너는 사람들에게 흠없이 도도하게 살기를 바란다. 너는 사람보다 앞서서 머리를 가졌고, 많이 배웠고, 강한 의지를 가져 자기를 관철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도 경건하여 바리새파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좋은 히브리혈통을 가졌다. 그런 까닭에 너는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잘난 자기를 겨루려고 했다. 너는 극도로 오만했다. 그런 기질이 마침내 갈릴리에서 시작된 민중의 운동을 멸시하며 박멸하려는 전선에 나서게 한 것이다.

그때 너는 신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율법에 따라 의무도 다 지키고 관념의 신의 자리를 뚜렷하게 만들어놓고 민의 스승임을 자부했으나, 그 신과 어린애가 어머니 품을 의존하듯이 그렇게 깊은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는 한 네가 입으로 믿음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으나 그 참 현실은 이해하지 못했다.

네게 필요한 것은 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보다 완전한 것

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 약점이 폭로되는 것, 사람들의 비난이 가시가 되어 계속 네 속에 지닌 아픔을 자극해야만 된다. 그때 너는 비로소 애기가 엄마를 찾듯 나를 찾으며 애기가 엄마를 믿듯 나를 믿으리라."

결국 바울의 병은 계속 그의 허세를 찢른 것이다. 그것은 가장 아픈 상처요, 거짓 사랑을 폭로당한 부끄러움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 자신도 믿고 남에게도 그렇게 보이던 확신의 허구를 폭로한 것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절규한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며 모욕을 당하며 궁핍과 박해와 곤궁을 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내가 강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12, 10)

결국 그가 지닌 병이 그를 약하게 하므로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오만을 꺾어버리고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가 강하다는 것이 선포된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가서 바울을 괴롭히는 모든 것에 적극적인 의미를 준다. 그것은 바로 그를 고난의 삶으로 끌여가는 온갖 요소들이다. 그의 속에 있는 병만이 그를 그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는 모든 박해가 그의 허세를 찢르고 자부심을 찢르는 자기 삶에 없어서는 안될 힘의 원천이다.

사월 중순이 되면 산단화가 무수한 꽃망울을 맺는다. 바로 그때가 4.19가 일어난 때인지라 나는 늘 그것을 보면서 4.19에 죽어가며 흘린 젊은이들의 피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어느 글엔가 실은 일이 있다. 4.19는 분명히 우리 현대사에 커다란 상처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의 피가 없었다면 4.19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산단화의 붉은 꽃이 핏방울처럼

몽우리지지 않는다면 산단화일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에 빠진다. 민주주의를 겨냥한 4.19가 있으려면 젊은이들이 흘리는 피가 필요했다. 4.19 아침마다 4.19기념탑을 찾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가족들은 아직도 못 다 운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숙연해지지만, 저들을 울게 하는 그 피가 없었던들 어떻게 4.19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아이러니에 잠기곤 한다.

사람은 상처를 싫어한다. 상처란 바울의 의미대로 한다면 내게 도전하는 모든 것으로 확대할 수 있겠는데, 그런 도전들을 피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그러나 도전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 있으나 죽은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시오'라는 소원을 입에 담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젊었거나 늙었거나 누구든 자기 생을 돌아보면 온통 상처투성이다. 오히려 철이 없을 때는 상처를 모르고 사나 나를 알고, 남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정을 느끼면, 깨끗한 줄 알았던 자기 몸에 깊이 박힌 상처가 하나하나 느껴지고 현실로 나타난다. 그것은 한마디로 아픔이다. 이미 지난 과거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없었던 일로 치부해버리려고 하지만 이런 저런 일들은 깊이 박힌 가시에 찢리는 상처로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어머니를 위시해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상처를 느낀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처의 심도는 더해만 간다.

**상처는 잊어야 하나?**

상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멎히게 된다. 내가 남에게 준 상

처, 남이 내게 준 상처,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앓고 있는 상처에 참여하여 내게 계속 아픔을 주는 상처, 그 상처를 준 계기는 작은 말 한 마디에서부터 행동, 아니 내 삶 전체로 올 수 있다. 그때 내가 엄마에게 왜 그렇게 통명스러운 말을 했을까? 그 말이 가시가 되어 어머니의 몸 속에 깊이 간직되어 세상을 뜰 때까지 피를 흘린 것이나 아닐까. 나를 하늘같이 믿던 사람에게 어떤 배신이나 실망을 주어 지금도 나를 생각한다면 그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지 않을까. 나 자신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상상해보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선인장이다. 선인장은 무수한 가시를 밖으로 향하고 있는 차이일 뿐 무수한 가시를 가졌다는 것에 있어서는 나와 방불하다.

나는 몇 사람의 슬픈 삶에 참여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다. 그중에 성폭행을 당한 여자의 경우가 상처라는 말의 뜻을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어린 나이로 있을 때 야수와 같은 의붓 아버지에 의해서 계속 몸을 유린당했다. 그가 끝끝내 침묵을 지켰기에 아무도 그의 이 상처를 모르고, 또 세월이 흐름과 더불어 그 상처는 아물어버렸으리라고 생각됐다. 그러나 혼기가 되어 상대를 만난 순간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상처에 또다시 가시가 박히는 아픔이 되어 현실이 됐다.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진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신념같이 뱉는 말이 있다. “당신은 결코 부정하지 않소. 정조란 남자들이 여자를 철저히 예측시키기 위해 만든 관념이요, 과거에 강요되어 뺏긴 정조가 상처가 되어 괴로움을 받는 것은 남자들에 의해서 세

뇌된 관념이 하는 일이요, 깨끗이 잊어버리시오.” 말은 옳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한다고 상처로 받는 아픔이 그에게서 가셔지나! 그런 말에도 상처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내 말을 이어나간다. “만일 그 일이 정말 상처라면 그리고 만일 지금 나타난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상처를 당신 안에 지니고 사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상처를 옮겨주는 것 이상 다른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런 ‘설교’는 소극적인 의미밖에 없다. 상처는 잊을 수도 없거니와 잊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끔찍하게 들렸으나, 사람은 가진 상처에서 피를 흘리면서야 비로소 참 사람으로 크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진리다. 그러나 여기에 한계가 있다. 바울이 그 상처의 의미를 수용한 것은 자기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 주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것뿐일까? 그래서 상처는 바로 내 죄값을 대속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그리고 바른 길일까?

### 예수와 프로메테우스의 상처

역사적 상징어로 우리 마음에 언제나 살아 있는 상처로서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몸의 상처와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죄로 바위에 비껴매인 채 까마귀에게 심장을 매일같이 뜯기우는 프로메테우스의 상처를 생각하게 된다. 비록 그중에 하나는 신화이나 모두 사람들을 위한 상처라는 데서는 같다. 그 두 상처에서 인류의 역사를 두고 피는 계속 흐른 것이다. 사람이 존재하는 한 멈출 수 없는 피, 그 상처.

프로메테우스는 받은 상처에서 계속 피를 흘리고 있다. 그가 하늘의 불을 훔쳐다가 사람들에게 준 탓으로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아 바위에 비끌어매이고 매일같이 까마귀가 와서 그 심장을 뜯어먹는다. 그러므로 그는 상처를 가진 환자가 아니고 인간애에 불타는 화신이다. 희랍의 현인들이 이런 신화를 만들어낸 것은 가장 고귀한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으리라. 그의 흘리는 피는 이기주의 때문에 사랑을 질식시킨 사람들에게 계속 목을 추기는 생명의 물방울이 되고 있다.

또 하나의 큰 상처가 예수의 옆구리와 머리와 손발에 찢린 창과 못자국이다. 그 상처에서 계속 흐르는 피가 이천 년 동안 인간을 고발하며 치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왜 그런 커다란 상처를 입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프로메테우스의 경우처럼 선명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가 피를 흘리는 그 상처의 이유를 제멋대로 설명하고 교리화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그마만 가지고는 그의 상처를 다 설명할 수 없다. 그 상처를 구체적으로 낸 세력은 로마제국으로서 그를 통해 일어날지도 모르는 소요를 막기 위해 죽여버린 것이다. 맨처음 씌어진 마가복음서는 그의 수난의 장면을 철저히 신 없는 세계로 그렸다. 체포해서 년센스 같은 재판관을 거쳐 십자가에 다른 일반범과 함께 처형될 때까지, 그리고 찢린 상처에서 피를 다 쏟아 탈진해질 때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부르짖고 누구를 향해서인지는 모르나 저항하는 것 같은 큰소리를 지르고 운명할 때까지, 그가 유일하게 믿던 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마가는 예수를 죽인 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신념을 고백하라고 한다. 아직도 신비한 그의 상처의 원인은 선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죽었는데도 아직도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듯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의 못다한 고난을 내 몸으로 채워가겠다”는 고백을 하게 한다. (골로 1, 24) 그의 상처의 피는 흐르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가 하얗게 칠해 세운 십자가상에 떠알간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따위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으로부터 흘러흘러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 날마다 죽는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에도 그의 상처를 자기 가슴에 안고 그의 피를 내 삶에서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내가 남에게 받은 상처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슴에 안고 삶을 도둑질하는 권리는 포기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남에게 준 상처, 당신이 남에게서 받은 상처,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되어 내가 사람으로 성장하고 원숙해지고 상처투성이의 역사를 향해 분노할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우리 역사의 상처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수없는 상처를 받아왔지만 특별히 지금도 피가 흐르고 있는 두 상처를 느끼며 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는 우리 민족분단을 가져온 분계선에서 흐르는 상처요, 다른 하나는 군사 쿠데타로 일으킨 상처, 그중에서도 5.18에 입은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있다.

3.8선은 우리의 허리를 가로지른 상처로서 피를 계속 흘

리고 있다. 50년 계속되는 이 상처를 남북의 위정자들은 오히려 그 상처가 아물세라 기회 있을 때마다 건드리며 그 상처로 민을 협박한다. 5.18의 잔인한 상처를 일으킨 지 벌써 16년이 흘렀다. 대낮에 대학살을 총지휘한 악당들이 대를 이으며 그 권력으로 무법천지를 만드는 동안 피는 계속 흐를 뿐 아무도 그것을 싸매주려는 사람이 없었다. 16년이 지난 오늘 민의 아우성에 굴복해 마침내 저들을 재판정에 올려놓게 되었으나 저들은 끝끝내 애국자요,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으며, 저들에 대한 심판을 강요당한 현정부도 그 아픈 상처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고 있다.

지난번 TV 화면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전설 같은 얘기 한 토막에 가슴을 찢렸다. 어떤 새가 있는데 평생을 울거나 노래하지 못하다가 험상한 가시나무의 가시에 찢려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를 한번 지르고 죽는다는 얘기다. 피흘리는 이름 모를 새, 상처에서 피흘리는 동안만 노래를 할 수 있는 새, 그 새는 이 소리, 이 노래 하나를 불러보기 위해 세상에 왔던가? 그러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상처를 자른 것일까? 이것은 인간의 운명과 상관이 없나?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제가 어릴 때부터 사랑하던 여인이 성인이 됐을 때 그 여자와 조용한 해변가에서 대주교의 의복을 벗어던지고 한 주간을 그녀와의 사랑에 깊이 빠졌다. 일생 허원을 파기한 것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사제복을 벗으려는 그에게 한 추기경이 이런 뜻으로 말한다. “당신은 너무 교만했고 머리가 좋다고 자부했으며, 야심에 차 있었소. 그 사건은 당신의 몸 속에 박힌 가시요. 그것을 일생 간직하시오. 그러면서 당신은 완전으로 향해 성장하시오.”